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 style="font-size: 2em; margin: 0;">새고려신문</h1>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8년 4월 20일(금) ... (음력 3월 5일) ... Пятница 20 апреля 2018 г. № 15(11678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지난 18일(수) 사할린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제15차 사할린 한인 동포단체 대표자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예식 기자 촬영)

제15차 사할린 한인 동포단체 대표자 회의

한국은 영주귀국 사업과 2-3세 모국방문사업 계속 추진, 일본은 역방문 사업 지속 부담

지난 18일(수)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제15차 사할린 한인 동포단체 대표자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정기회의는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소가 주최했다. 이번 회의에 4월 1일부터 새로 부임한 한적 특수복지사업소 최영운 소장·이혜영 팀장, 그리고 사할린 한인 사업담당 최혜선 씨가 대표했고 러시아와 CIS(독립국가연합)에서는 사할린주 한인회 박순욱 회장, 사할린주 한인노인회 김홍지 회장,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박경춘 부회장, 지역 간 사회단체 사할린인협회(모스크바) 김태성 회장, 연해주 이산가족협회(블라디보스토크) 전윤수 회장, 극동지역 한인이산가족협회(하바롭스크) 김영준 회장, 카자흐스탄 사할린향우회 이화섭 회장이 참가했다.

회의는 한적 이혜영 팀장이 진행했다. 회의 참석자 소개를 한 후 최영운 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2005년에 사할린에 다녀간 적이 있는 그는 사할린 한인 단체 회장들을 환영하고 “이번 대표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전달한 내용들이 하루빨리 양정부에 반영되어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결의문에 적혀있는 회장님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소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할린 역방문 사업에 있어서 운신이 어려우신 분들이 사유

서를 제출하시면 10월부터 가족 1명을 한국에 초청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작년에 추진한 2-3세대 모국방문 사업도 작년 같은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라고 했다.

2017년도 사할린 지원 실적에 따르면 작년에 일시 모국방문은 총 115명(계획 110명)이 했는데 그중 1세는 58명, 2세는 57명이었다. 귀국은 9명(계획 20명)이 했고 1세 6명과 2세 3명이었다. 영주귀국자 458명(계획 438)이 사할린을 비롯해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하바롭스크 등 전 거주지역을 역방문했다. 대한민국이 처음 추진하여 지원한 2-3세 모국방문프로그램에는 319(계획 250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사업으로 2017년도 지원예산은 1,838,843,426원이었다. 일본 정부지원금은 1,248,843,426원(122,917,660엔), 한국 정부지원금은 590,000,000원이다.

각 지역 사할린한인단체 대표들의 보고도 있었다. 회장들이 모국방문, 역방문, 영주귀국 사업보고 외에 지역에서 진행하는 행사 등 단체 현황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유골봉환 지원 문제 부터 대표자 회의마다 내세우는 잔류1세 한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사할린단체장들은 회의 결의문(이번 회의 결의문 2면에 게재. -기자주)을 지속적으로 한·일 정부에 보냈지만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않는 데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2018년 사할린 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요구사항을 5월 말에 서울에서 진행할 한국-일본 협상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순진 기자)

사할린주, 농산물 생산량 속도 증가로 극동에서 1위 차지

지난 17일(화) 있는 사할린주 농업부 확대 간부회 회의에서 작년의 사업을 총결산하고 올해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2017년에는 농업개발에 사할린주와 연방 예산에서 39억 루블리가 책정되었었다. 사할린주는 농산물 생산량 속도에 있어 극동지역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 사할린지역에서 육류와 가공육의 생산량은 1/3로 증가했고, 사할린 산지 감자와 달걀 100%, 채소 90.8%, 온실 채소 61.4%, 우유 19.3%, 육류 15.9% 를 생산·확보했다. 신농업 생산능력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성공적 결과를 얻었다. 회의에서 올레그 코제마코 사할린주지사는 농산물 가공시설의 부족에 대해 지적하고 이와 관련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계획의 실현을 지속하고 농지 개량 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신

이석배 한국 총영사, 주정부 관계자 비롯해 동포단체장 만나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2-13일 이틀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시티몰>쇼핑센터 소재 <최고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제>가 개최되었다. 공공외교로 인정된 이 행사는 주블라디보스토크한국총영사관이 주최한 가운데 이석배 총영사는 직접 한국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사할린을 다녀왔다. 영화 개막 상영에 참가 외에도 그는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와 면담에서 사할린에 한국의 투자기회들을 논의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 세르게이 나드사진과 만남에서는 사할린과 한국 간 여러 분야 교류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사할린동포와 교민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와 언론간담회를 가졌다.

사할린주 올해의 교사로 알렉산드라 파리아추크 선정

지난 17일(화) 체호브센터에서 제28회 <2018년 사할린주 교사>경연대회 폐막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대상은 오하구역 네크라슈카촌 기숙학교 초등교사 알렉산드라 파리아추크가 차지했다. 대상 시상에는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가 직접 크리스탈 펠리컨과 함께 상금으로 11만 5000루블리를 수여했다.

<2018년 사할린주 교사> 경연 최종 단계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4월 9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가운데 지방자치체를 대표하는 교사 29명이 참가했다.

<교사 데뷔> 부문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제32학교 초등교사인 아나스타시야 막시모와, <학령 전 기관 우수 교육자>부문에서는 스미르니호부락 제1 <울립카(미소)> 유치원 음악 교사 나탈리아 셀레츠카야가 우승을 차지했다.

사할린주, 전국 지휘 참모부 훈련에 참여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할린주가 전 러시아 지휘참모부 훈련에 합류했다. 자연산불 방지와 봄철 홍수방지 훈련에 주내 행정기관, 러시아 비상사태성, 국가 총경보 및 비상사태 대처시스템이 참가했다.

훈련의 주요 목적은 기술적 특성의 재난과 자연적 재해, 계절적 위험요소로부터 사회적 제반시설과 경제 대상 및 주민의 안전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다. 훈련 시, 특히 비상사태가 발생할 지역에 항공기와 무인항공기 시스템, 항공모빌 배치의 적용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인적자원개발기공과 사할린국립대, 협력 선언

지난 17일(화) 극동 인적자원개발기공과 사할린국립대학교가 인적자원개발기공의 주요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관계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

극동 인적자원개발기공의 알렌젠 짜마코브 대표이사와 사할린국립대 총장 대행 올레그 표료도르보가 합의서에 조인했다.

양측은 인적 자원 개발과 청년 전문가들의 노동력 관리와 전문가 개발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전문가 개발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졸업생 취업, 직업, 전문성 향상 기획들을 추진·실현할 전망이다.

결 의 문

2007년 3월, 2009년3월, 2011년 4월, 2012년 4월, 2013년 5월, 2014년 5월, 2015년 5월, 2016년 4월, 2017년 4월사할린 한인단체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일본 정부에 대한 결의문이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1. "사할린 동포 지원 한-일 적십자사 공동 사업체"에 사할린 한인 단체 대표를 참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자손들 중 희망자에 한해 영주귀국을 허용하라.
3. 2015년도 이후 영주귀국이 마감되더라도 현지에 남은 1세들을 위해 일본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야한다.
4. 사할린 1세 잔류자들에게 매월 미화 300달러의 생계 지원금을 지원하라.
5. 1세대 부모 사망자 자녀 모국방문을 추진하라.
6. 징용 당한 사할린 한인들의 미지급 임금, 우편예금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사할린 한인 특별기금으로 조성하라.
7. 1세가 영주귀국 및 일시모국방문 시 동반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 2-3세대가 영주귀국한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왕복 항공료를 지불하라.
8. 사할린 1세 잔류자들을 위해 양로원 건립과 운영비를 지원하라.
9. 영주귀국하신 부모님의 장례식에 자녀들이 참석할 수있도록 왕복 항공료를 지불하라. 본 결의문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러시아 및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2018년 4월 18일

사할린지역대표:

사할린주 한인회 회장 박 순옥
사할린주 노인회 회장 김 흥지
사할린주 이산가족회 부회장 박 경춘

극동지역대표:

극동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김 영준
연해주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전 윤수

모스크바지역대표:

지역간사회단체사할린한인협회 회장 김 태성

CIS지역대표 :

카자흐스탄 사할린 향우회 회장 리 화섭

결 의 문

2007년 3월, 2009년3월, 2011년 4월, 2012년 4월, 2013년 5월, 2014년 5월, 2015년 5월, 2016년 4월, 2017년 4월사할린 한인단체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한국 정부에 대한 결의문이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1. "사할린 동포 지원 한-일 적십자사 공동 사업체"에 사할린 한인 단체 대표를 참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자손들 중 희망자에 한해 영주귀국을 허용하라.
3. 한국국적이 없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러시아 현지 자손들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라.
4. 2015년도 이후 영주귀국이 마감되더라도 현지에 남은 1세들을 위해 한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5. 사할린 1세 잔류자들에게 매월 미화 300달러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라.
6. 1세 부모 사망자 자녀 모국방문 인원을 확대하라.
7. 사할린 1세 잔류자들을 위해 양로원 건립과 운영비 지원하라.
8. 영주귀국하신 부모 장례식에 자녀들이 참석할 수있도록 왕복항공료를 지불해줄 것.

본 결의문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2018년4월 18일

사할린지역대표:

사할린주 한인회 회장 박 순옥
사할린주 노인회 회장 김 흥지
사할린주 이산가족회 부회장 박 경춘

극동지역대표:

극동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김 영준
연해주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전 윤수

모스크바지역대표:

지역간사회단체사할린한인협회 회장 김 태성

CIS지역대표 :

카자흐스탄 사할린 향우회 회장 리 화섭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불멸의 연대> 행진 준비

<러시아 불멸의 연대> 지역운동본부는 5월 9일 에 이뤄질 행진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 행사에 참가 할 희망자들을 초대한다. 시민들의 행진은 대조국전 쟁 승리 73주년 기념 행사 중 하나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5월 9일 8시15분부터 45분까지 프로 스펙트 포베디(승리 거리)를 중심으로 콤포스카야 거리부터 프로스펙트 거리까지 집합한다.

열병식이 있는 후 <러시아 불멸의 연대>는 승리 광장부터 고리키 거리를 향하고 슬라와 종합기념광 장까지 행진하여 성화에 헌화할 예정이다. 그다음은 콤포스카야거리에서 거리를 따라 제1진료소를 지나 가가린 시공원 입구까지 행진한다.

행진에는 각 단체들(기관)과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고 각 참가자들은 친족들 중 대조국 전쟁 참전자나 후방 영웅들의 사진을 들고 행진에 나서도록 한다.

참가신청은 지역운동본부에서 5월 8일까지 접수 한다. 신청 양식은 자유다.

신청서는 이메일region65@polkrf.ru 또는 militer@mail.ru, WhatsApp 번호는: +79147424872. 조정담당 안드레이 푸젠피로브 지역운동본부 본부장.

문의전화는 +7 (4242) 73-31-17라고 주취 측 이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отовятся к шествию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Штаб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движени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России" продолжает подготовку к шествию, которое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9 мая. К участию приглашают желающих. Шествие станет составной частью торж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73-й годовщине Победы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Сбор участников пройдет с 8.15 до 8.45 9 мая на участке проспекта Победы от перекрестка с улицей Комсомольской до перекрестка с проспектом Мира.

После военного парада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России" пройдет от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по улице Горького д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лавы, где участниками шествия будет проведено массовое возложение цветов к Вечному огню. Далее шествие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п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му проспекту до поликлиники №1 и входа в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имени Гагарина.

В шествии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как организации (учреждения), так и отдельные граждане.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выходит на шествие с портретом (портретами)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принимавших участие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как на фронте, так и в героическом тылу.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ются региональным штабом движения до 12.00 8 мая. Форма Заявки — произвольная.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region65@polkrf.ru или militer@mail.ru, по WhatsApp: +79147424872. Координатор — Андрей Фугенфир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штаба движения.

Заявки от средних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направляются в департамент образов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ординатор — Елена Таскаева, телефон: +7 (4242) 31-26-87, добавочный 5. region65@polkrf.ru или militer@mail.ru, по WhatsApp: +79147424872.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7 (4242) 73-31-17, сооб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шествия.

사할린주민 150명, <강치와의 만남> 유람에 참가

<부메랑>클럽은 네벨스크시에서 사할린주 자원. 환경보호부의 지원으로 <강치(바다사자)와의 만남> 해안 유람을 15년째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람 진행의 후원은 러시아 비상사태성 네벨스크 소형 선박 검사국, 폴라코브 수색구조대, 주 교통부, 네벨스크 항구, 네벨스크 구역 행정부가 했다.

이번 해안 유람에는 무료로 150명의 사할린 주민들(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제6, 제19, 34학교, 제2 리체이, 청소년관광센터 학생들과 트로이츠크예 학교와 네벨스크시 <아틀레트>아동단체 학생들이 참가했다.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강치 유람은 네벨스크의 구 일본방과제 곁에서 이뤄진다. 거기에는 계절에 따라 강치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올해는 8백 마리 이상이 자리하고 있다. 강치 유람이 학생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좋은 추억을 선물할 거라 본다.

강치는 멸종보호동물로 지정되어 있고 세계, 러시아와 사할린의 붉은 책(수렵금지목록서)에 등재돼 있다.

150 сахалинцев посетили экскурсии "Знакомство с сивучами"

Пятнадцатый год проходят традиционные морские прибрежные экскурсии "Знакомство с сивучами", проводимые клубом "Бумеранг" в Невельск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поддержку в проведении экскурсий оказали ГИМС МЧС РФ по Невельску,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ый отряд имени Полякова,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морской порт, администрация района.

В экскурс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50 сахалинцев: учащиеся школ №6, 19, 34, лица №2, центра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туризм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роицкой школы и дет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Невельска "Атлет". Экскурсии проводились бесплатно.

Уникальные экскурсии, имеющие очень мало аналогов в мире, проходят в Невельске возле старого японского брекватера, где расположилось сезонное лежбище сивучей. В этом году на брекватере находится более 800 животных. Эта экскурсия оставляет огромный эмоциональный след в памяти и сердцах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Сивучи — исчезающий вид морских млекопитающих, занесенный в Красные книги мира, России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예술전문대, <독서의 밤> 행사를 위해 두 공연 준비

<비블리오노치(독서의 밤)> 전 러시아 행사의 일환으로 4월 21일 18시 30분과 22시에 두 차례 걸쳐 사할린주 일반과학교서관에서 사할린예술전문대의 챔버 오케스트라 (지도: 명예 공훈문화 아나톨리 주크)와 <압술류트 재즈 사중주> (지도: 드미트리 카푸스츠크)의 연주가 펼쳐진다.

18시30분에는 챔버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 로시니, 카치니의 곡들과 아르노 바바차난, 막심 두나옙스키, 블라디미르 코스마 등의 유명 히트곡들을 연주한다. 또한 관객들에게 익숙하고 심금을 울리는 곡들 <나를 기다려줘>, <나의 길>, <나는 왈츠의 리듬을 기억해>, <봄이 오네> 등을 예능부 학생들의 노래를 감상하게 된다. 연주 목록은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가창, 영화음악, 20세기 국내외 최고 히트곡 등 20곡으로 편성된다.

22시에는 <압술류트 재즈 사중주>가 즉흥음악을 연주한다. 관객들은 전설적인 작곡가들, 치크 코레아, 조세프 코스마, 스텐리 타렌타인, 호라스 실웨르, 켄니 도레마, 에롤 가르네르, 헤르비 헨코크, 조 사위놀라, 안젤로 바다라멘티, 존 콜트레인의 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고 사할린예술전문대 홍보실이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й колледж искусств подготовил два концерта к "Библионочи"

21 апреля в 18:30 и 22:00 в рамках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Библионоч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состоятся два концерта: камерного эстрадного оркестра (руководитель,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Анатолий Жук) и "Абсолют Джаз Квартета" (руководитель Дмитрий Капустюк).

(8면에 계속)

<한국영화의 날들>

"봐라, 전쟁은 말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 최고인 기라." (영화 <평양성>에서)

한국영화계가 지난 4월 13일(금)~14일(토) 양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시티몰> 쇼핑센터 (3층) 영화관에서 열렸다. 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의총영사관 주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코트라, 사할린출장소의 협력으로 개최되었다. 영화제 개막일에는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이석배 총영사를 비롯한 일행이 참석해 관객들과 함께 첫 영화 <군도>를 관람했다. 3년 반 만에 개최되는 한국 영화제는 사할린 주민들에게도 기대되는 축제였다. 잘 설명되어 있는 영화 안내서가 마련되어 관객들은 시간과 기호에 맞는 영화를 선택해 볼 수도 있었고 토요일 만나질 동안은 영화를 보며 쇼핑센터에서 즐기기에 충분했다.

"한국영화제를 개최하며 이석배 총영사는 영화 안내서의 지면을 통해 <한국영화의 날들>을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의총영사관이 개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할린은 유달리 한민족의 마음을 전술케하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남겨졌던 우리의 선조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러시아 민족과 합류하여 살아야 했던 곳이고, 현재는 사할린주 정부와 대한민국과 적극적인 관계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경제,문화,사회,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할린은 한국과 러시아와의 상호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 전망합니다. 한국영화제를 통해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께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며 매해 문화행사와 한국영화제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사할린주 정부에게 감사드리며 영화제에 참석하시어 즐겁고 만족스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영화들은 흥미나 스펀을 즐기기도 하는 사실주의에 입각해 구성된 작품들로 영화를 통해 한국의 역사적 사건 속에 낳고 평범한 서민들의 실제적인 삶과 고통과 애환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었다.

첫날 <군도: 민란의 시대>는 윤종빈 감독이 제작, 2014년 개봉된 영화다. 이날 관객석은 거의 자리가 채워졌다. 영화의 배경은 1862년 철종 13년. 조선에 서민들의 삶은 기근과 양반들과 탐관오리들(서민들의 재물을 탐내어 속여 빼앗고, 그 행위가 정직하지 않고 더러운 관리들)의 착취, 과중한 세금으로 고통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지방에서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이 집

결하여 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때 힘없는 백성의 편에 서서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바로 잡고자 의적적인 군도들(群盜:탐관오리들의 재물을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로운 도적)이 있었으니 그들이 '지리산 추설'이다.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를 알지 못하니, 이 때문에 낮은 백성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까지 들어 친구명 속에 가득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우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 라는 정약용의 <목민심서> 서문을 추설은 못된 양반 앞에서 낭독한다. 그리고 "감히, 지리산 추설 노사장의 앞길을 누가 막겠는가?"라는 호통과 함께 앞으로 군도가 전개할 일이 암시된다. '지리산 추설'에 가입한 백정 도치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처참히 살해한 조운과 대결하는 구도로 이야기는 전개된다. 조운 역시, 첩의 아들로 집안에서 차별을 받으며 설움과 눈물 속에 살아남고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지시로 매맞아 죽는 것을 목격한다. 그리고, 돈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고 가난한 백성들한테서 미친 듯이 재산을 끌어모으며 백성들의 반감을 산다. 지리산 추설과 조운은 삶의 벼랑 끝 자락에서 서서 대항하고 살아남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몽치면 백성, 흠어지면 도적!"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리산 추설'은 망할 놈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진압하려는 자들과 대결하고, 마침내 조운과 도치가 결투하는 자리에서 조운은 자신의 어린 아들을 안고 도치의 칼에 죽는다. 이로써 잔혹하게 살아온 그의 삶도 끝난다. 과연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자들이 누구인지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토요일에는 4개 작품이 상영되었다. 영화 <연애의 온도>는 노덕 감독이 2013년에 개봉한 작품이다. 흔히 하는 연애는 뜨거움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공감과 이질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뜨거웠던 마음은 조금씩 자신들도 모르게 식어가고 있음을 느끼지만 솔직하게 털어 말하기를 꺼리면서 이어지는 관계는 연애의 온도를 더욱 차갑게 만들어간다. 주인공 동희(이민기)와 영(김민희)은 3년 차 비밀연애커플이다. 서로 온도를 재어가며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한다. "년 변한 줄 알아? 너만 피말라? 나야말로 너랑 있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 나랑 만난 거 후회할까봐 너랑 같이 있으면 나, 숨도 제대로 못쉬어..." 마침내

서로의 마음 속에 숨겨둔 말들을 다 토해내고 헤어지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는 서로를 잘 알기에 그리 뜨겁지도, 그리 차갑지도 않은 관계가 다시 이뤄진다. 연애의 적정 온도는 몇도 일지를 생각하게 한다.

영화 <소원>은 이준익 감독의 2013년 개봉작이다. 12세 이상 관람이었지만 객석은 어른들로 가득 메워졌다. 이 작품은 실제 사건을 소재로 제작되었고 영화상에서 청룡영화상의 최우수 작품상, 여우조연상, 각본상,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다. 8세 소녀, 소원은 등교길에 술에 취한 남자에게 끌려가 잔혹하고 무자비한 성폭행을 당한다. 사건전개 속에 아이와 함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부모와 이웃들의 아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해가려는 눈물겨운 노력이 빈틈없이 장면마다 그려진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지만 소원은 상처를 감싸고 그렇게 이웃들의 뜨거운 사랑과 응원과 배려로 미소를 되찾고 자기의 삶을 이어가면서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꺼지고도 객석에서는 누구도 일어설 생각이 없는 듯 조용했다. 그 다음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객석의 불이 켜지면서 소원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마음으로 관객들은 보는 내내 흘렸던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네 번째 영화는 한국의 유명 단편소설을 만화영화로 제작해 2014년에 개봉했던 3 작품이 상영되었다. 청소년과 성인들이 함께 편히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다. 단편소설들은 1936년에 발표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1924년에 발표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1934년 발표된 김유정의 '봄봄'이다.

<메밀꽃 필 무렵>은 강원도 봉평을 배경으로 떠돌이 장돌뱅이인 허 생원이 지방 장을 돌아다니다가 장에서 동이란 청년을 만난다. 이들은 함께 밤에 봉평 메밀꽃밭을 지나가게 되면서 서로의 긴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그리고 허 생원은 동이가 오래 전 자신과 뜨겁게 하룻밤을 보낸 여인의 아들이자, 자신의 버릇도 그대로 닮은 자기의 아들임을 알게 되는 데서 이야기는 끝난다. 허 생원 으로서는 충격과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 얘기는 관객의 상상에 맡겨진다.

<운수 좋은 날>은 1920년대를 배경으로 주인공 김 침지는 병든 아내와 어린 아이를 책임지는 집안의 가장이다. 그는 도시에서 인력거를 끌며 돈을 번다. 병든 아내는 설렁탕은 좋아했다. 김

침지는 '병이란 늙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며 아내의 약을 사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듯 말한다. 아내의 병은 깊어가지만 돈벌이도 안 되고, 약을 살 돈도 없다. 어느 운수 좋은 날 인력거에 손님을 많이 태우면서 돈을 두둑히 벌게 되자, 술 한 잔 먼저 걸친 후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사들고 집으로 간다. 그런데 그가 내민 설렁탕을 아내는 누워서 보지도 않는다. 이미 아내는 죽어 있었던 것이다. "왜 설렁탕을 사왔는데 먹지 못하냐?!" 라는 울부짖음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봄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그려졌다. 농촌을 배경으로 당시 데릴사위로 들어간 '나'와 '나'의 노동력을 이용하고도 딸을 선뜻 내주지 않는 장인과 의 갈등, 딸 점순은 그 사이에서 '나'에게 결혼에 대해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괴팍한 장인과 데릴사위의 갈등, 풋풋한 시골 남녀의 사랑과 웃음이 솔직담백하게 그려져 있다.

한국 영화제 마지막 작품은 <평양성> 이준익 감독의 2011년 개봉작이다.

삼국통일에 대한 대규모 코믹 사극 영화이다. AD 665년경-668년경을 배경으로 삼국으로 나뉘었던 한반도에서는 영토 전쟁이 잦았다. 이때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중국의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치고 점령한다. 그 기세로 백제군을 합류시켜 고구려의 평양성으로 진격해 간다. 경상도의 신라군, 전라도의 백제군이 평안도에 이르자 군인들 사이에 전달되는 사투리 열전과 등장인물의 이름들 '거시기', '머시기', '문디' 등이 웃음을 자아낸다. 고구려는 대장군 연개소문이 죽고, 세 아들(남생, 남건,남산)이 이간을 당해 분열되면서 대동강 이남 땅을 신라 연합군에게 빼앗기고, 망한다. 그러나 연합군으로 참가한 중국의 당나라가 한반도에 9개 도독부를 설치해 당나라의 지방행정구역으로 간주하고 지배하려 하자 신라는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려는 작전을 세우고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 신라의 군과 연합해 당나라를 쫓아내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려냈다.

신라의 백발의 김유신 장군은 평양성 앞에서 당나라의 사령관 이적에게 말한다. "고구려 땅에서 약탈한 거 다 내놓고, 말이랑, 마차랑, 무기랑 다 내놓고 당나라까지 걸어서 가라." 그리고 부하에게 말한다. "봐라,봐라,봐라, 전쟁은 말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 최고인 기라. 알긋나?"

(박혜신)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1차 운영위원회 시드니서 개최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제1차 운영위원회'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됐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이하 재단) 주최로 열린 이번 운영위원회에는 대륙별 총연합회장과 지역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결과 보고 및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세부 프로그램 등 기본 계획에 대한 의결이 진

행됐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국내 청년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한인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가 마련됐다. 재단의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에 대한 설명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대륙별 총연합회 및 지역별 한인회 차원에서 국내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지난 대회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적 토론회', '해외동포 처우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보완' 등 2018년도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는 10월 초, 3박4일 일정으로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ярмарка корейского туризма

14-15 апреля в ТРК "Сити Молл"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ась ярмарка корейского туризма «Здоровье и отдых». Ее инициатором 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стала Национ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туризма Коре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НОТК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ярмарк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 медицинской сфе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также сахалинские туркомпании.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медицины и отдыха в Корее, узнать свой биологический возраст, а также сделать массаж рук или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в корейском традиционном наряде ханбок. Успехом пользовались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бумажных лотосов и украшению открыток колоритными печатями, куклы-аниматоры в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ах.

Подарки и сюрпризы подготовили не тольк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Юэс Травэл, Медикал Авеню, CMS KOREA, Клиника Анам при Корей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линика Святой Марии при Католиче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КванДонг", EMS, а также и местные компании,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Комп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го туризма "Авеста",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ООО "Вифлеем", ООО АТА "Сахалин-Трэвел", ГК "Мой Рейс", Туроператор по выездному туризму "Дрим", "Аэрофлот".

Как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Коре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Чо Юнми, НОТК уже третий год проводит подобную ярмарку на Сахалине и она пользуется успехом у горожан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и впредь продолжит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Наш.корр.)

Компания из Южной Кореи намерена построить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судовой верфь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ходе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 Олега Кожемяко с прибывшим на остров генеральным консул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Ли Сок Пэ.

Возможности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совместный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ой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зучает компания «ENK Co., LTD». В планах разместить нов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в морском торговом порту Корсакова, на который распространен режим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напомним, это дает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среди которых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 на прибыль, имущество и землю, беспрошльный ввоз товаров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 замыслу 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работающих в партнерстве с сахалинской компанией «Южный терминал», на перво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будущая верфь сможет ремонтировать мало- и среднетоннажные рыболовецкие суда местных 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а в дальнейшем и строить новые. Сейчас обсуждаются детали бизнес-инициатив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планирует провести презентацию проекта для судовладельцев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Это очень перспектив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егодн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решает задачу по обновлению рыболовецкого флота. Принята программа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квот, которая стимулирует судостроение на отечественных верфях.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активно включились в эту работу и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создать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бственное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Особую ценность для нас представляет передовой опыт Южной Кореи. Эта страна, как известно, - один из лидеров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в вопросах судостроения и судоремонта, - отметил на встрече губернатор региона Олег Кожемяко.

-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том, чтобы реализовать данный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Рассчитываю, что все получится, -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Ли Сок Пэ. -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являе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расширен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России и в том числе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В нашей стране реализуется, так называемая, новая северная политика. Определены 9 ключе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сновные в списке - энергетика, судостроение,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рыболовство, модернизация портов. По каждому из них на полях III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договорились сотрудничать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 Мун Чжэ Ин.

Сегодн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артнер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итогам 2017 года объем взаимной торговли вырос на треть и составил около 30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растил поставки в сопреде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не только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 нефти и угля, но и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товаров - сырьевых для их производства -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В структуре импорта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обладает машиностроительная продукция.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66 предприятий с участием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а. Организации из соседней страны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ах на сахалинском шельфе.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сновной объе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апитала сосредоточен в строите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Сахалина. Расширяется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угольной отрасли, сферах транспорта, торговл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и услуг. В числ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для контактов направлений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туризм,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и рыбная отрасль.

Помимо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в экономик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крепляют культу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13-14 апре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фестиваль «Дни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Сахалинским зрителям были показаны пять фильмов разных лет и жанров. Это боевик «Кундо: эпоха угрозы», романтическая мелодрама «Самая обыкновенная пара», военная комедия «Старая крепость Пхеньян», драматическая семейная история «Совон» и анимационный фильм «Дорог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Жизнь», сообщает пресс-центр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ругая страна, другая культура, другой язык, другие традиции и другие фильмы. Речь идет о фестивале «Дни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который стартовал 13 апре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жители и гости острова смогли увидеть пять кинокартин разных жанров и углубиться в культуру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Кинопоказы прошли в "Самом лучшем кинотеатре" без перевода с русскими субтитрами. Только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можно передать всю чувственность фильма и донести именно те эмоции, которые изначально были заложены. Загадочность в игре актеров, красивые пейзажи, эмоциональные диалоги - эти детали отличают корейское кино.

На кинофестивале было представлено пять фильмов. "Дни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открыл боевик "Кундо: эпоха угрозы". Это история о благородных разбойниках клана Чхусоль, стоящих на стороне бедного, бессильного народа в деле не легкой борьбы за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Картина, режиссером которой является Ан Чжон Бин, вышла в свет в 2014 году.

Люби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также

смогли увидеть романтическую мелодраму "Самая обыкновенная пара", комедийный военный фильм "Старая крепость Пхеньян", драматическую семейную историю, основанную на реальных событиях, которая затронула сердца миллионов зрителей "Совон, что значит "Надежда". Кроме того, сахалинцам покажут анимационный фильм "Дорог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Жизнь". Он основан на трех корейских коротких рассказах.

- Хотя это и анимация, я думаю, зрители смогли почувствовать глубокий философский взгляд наших авторов 20-х, 30-х и 40-х годов прошлого века. Тогда на наших писателей очень сильно влияли русские писатели-реалисты, - рассказала консул по экономике и культуре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Чо Гын Хи.

Это не первы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т на Сахалине. Последний был три с половиной года назад. Тогда, и в этот раз,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о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это очень большая территория. Наше генкон-



сульство не сможет каждый год проводить та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ородах.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провели корейски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в Хабаровске, а в этом году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ы очень сожалеем, что так получается, но мы стараемся, - добавила Чо Гын Хи.

- В планах - проводить тако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на острове ежегодно, - добавила сотрудник генконсульства Алена Тептя. - Наш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проявляет огромный интерес к Сахалину, поэтому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у нас будет более обширная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а.

(Александр Килимов, ИА САХКОМ)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Юг и Север провели второй раунд рабочих переговоров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межкорейскому саммиту

18 апреля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пограничного пункта Пханмунчжом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состоялся второй раунд меж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переговоров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саммиту. Переговоры начались в 10 часов утра и продолжались более пяти часов. Их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протокола,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журналистского освещения предстоящего саммита.

CNN: Председатель КНР посетит Пхеньян

Председатель КНР Си Цзиньпин намерен посетить Пхеньян в ответ на недавнее посещение Кита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лидером Ким Чон Ыном, сообщает CNN со ссылкой на «осведомлённые источники». По их данным, визит состоится «скоро», скорее всего, после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конце мая - начале июня.

Глава МИД РК встретила с президентом Казахстана

17 апреля в Астане глава МИД РК Кан Гён Хва встретила с президентом Казахстана Нурсултаном Назарбаевым и своим казахстанским коллегой Кайратом Абдрахмановым.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президентом она передала послание главы РК Мун Чжэ Ина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приложить совместные усилия в переходе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которые достигли боль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за последние 25 лет. Кан Гён Хва познакомил Нурсултана Назарбаева с ситуацией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на призвала Казахстан, добровольно отказавшийся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оказать содействие и поддержку в реш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Нурсултан Назарбаев в ответ заявил, что Казахстан, как и раньше, буд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позицию РК по проблема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е только на двустороннем уровне, но и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Он также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межкорейский и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ы создадут условия для мирн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Кайратом Абдрахмановым состоялось подробное обсуждение вопросов укрепл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Д РК, министры сошлись во мнении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асширять сфер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азвивая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сфере энергетики и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Для освещ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аккредитовано рекордное число журналистов

Для освещ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аккредитовано рекордное число журналистов со всего мира.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8 апреля, в официальные списки внесены 2.833 журналиста, в том числе около двух тысяч человек представляют 168 отечественных СМИ, 858 человек - 180 зарубежных СМ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это вдвое больше, чем на предыдущих межкорейских саммитах в 2000 и 2007 годах.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саммита будет допущено небольшое число журналистов, остальные будут аккредитованы при пресс-центре, который разместится в Корей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выставочном центре KINTEX в городе Коя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прос о прямой трансляции,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саммита.

В Бельгии проходит фестиваль Modern Sound Korea

17 апреля в Бельгии открылся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музыки Modern Sound Korea, который познакомит европейцев с традиционной и современн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музыкой.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длится до 5 ма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 Брюсселе.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тся в четвёртый раз. На концерте, открывающем Modern Sound Korea, выступят пять групп. 27 апреля состоится специа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ульгым»,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выступят популярны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молодёжные K-ПОП группы Land Of Peace и «Сэсонён». Там же гости смогут попробовать корейскую уличную кухню (RKI)

Супермарафон Кан Мёнгу во имя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и

17 апреля 2018 г. в Ташкенте встречали супермарафонца Кан Мёнгу, совершающего пробег во имя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и через весь Евразийский континент от Северной до Южной Европы с переходом в Турцию, далее вдоль южного побережья Черного моря к Кавказу, потом через Иран в Туркмению, Узбекистан, Казахстан, Киргизию, Китай,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и наконец домой в Южную Корею с пересечением 38-й параллели. Идея и реализация такого порыва души достойна великого уважения.

Вместе с марафоном идет перформанс художника Ким Бон Джуна с той же идеей. Художник, углубляясь в историю и мифы корейцев понял, что много общего у них с народами, населяющие Евразийский континент, поэтому идея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отражена в его инсталляциях и картинах и глубокой болью отдается в душе разделение Единой Кореи. Перформансом, а это на длинной ленте участники действия рисуют или пишут послание любви к миру, художник призывает людей к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и эта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многих и многих людей пересечет 38-ю параллель вместе с марафонцем.

Встреча ташкентцев и марафонца Кан Мёнгу проходила от Grand Mir Hotel до Сеульского парка, где прошли митинг с участием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 господина Квон Ён У и символическая це-

ремония - обращение художника Ким Бон Джуна к "высшим силам" с просьбой ниспослания здоровья и успешного завершения супермарафона во имя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и.



Кан Мёнгу. Фото Надежды Ли



(Источник: сайт «Коре сарам»)

Первая годовщина МДКМ

Ким Моисей,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ОК
Пай Павел, председатель МДКМ



15 апреля 2018 года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Профсоюзной улице, 65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МДКМ) отметило годовщину сво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свой первый день рождения (по - корейски - асянди).

На это памят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были помимо активистов МДКМ,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ОК Моисей Ким, председатель Москов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ОК Эдуард Ким,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ом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 Центра культуры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м Дом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РДНТ) Мин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Сергей Кулибаб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ще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 общественному контрол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осквы, президент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имени Ким Пен Хва Роберт Ким, член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бизнес клуба Кимчи Андрей Ким, кореевед Жанна Сон,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т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ресторана Белый Журавль, спонсоров и други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чалось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х слов ведущих, активистов МДКМ Александра Кима и Дианы Ан. С добротной текстовой и визуальной презентацией выступ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МДКМ Павел Пай. Он рассказал об итогах работы МДКМ за год, многих начинаниях, мероприятиях которые успели совершить за текущий год МДКМ. Также он посвятил в намеченные планы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будущее, которые собираются выполнить вся сплочённая команда МДКМ. «Мы не хотим повторять ошибки прошлых и других молодёж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ранее также, как и мы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ачинали подоб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У всех была, прежде всего, проблема с финансовым составлением. И будет правильнее и надежнее, если мы сами, на свои добытые финансы, будем проводить подобные акции и мероприятия. Чтобы решить эту

проблему мы создали коммерческий отдел МДКМ Молодежный Бизнес Фронт. А чтоб это было более успешнее, мы собираемся по этой идее расширяться и собирать ребят и с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так как там имеются и други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тому и достичь цели будет намного легче» - заяв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МДКМ Павел Пай.

Далее наступило время поздравлений и благопожеланий от гостей.

«Если честно, то мы сначала не воспринимали серьезно ребят, потому что уже было подобного рода движение, молодёжные корейские клубы и т.п. и оно как-то со временем распалось. Но эти ребята, которые объединились в МДКМ молодцы, показали себя и свою организацию и всего лишь за год работы завоевали наше доверие. Зрело,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и в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совместно с другими национальными диаспорами. Мы надеемся на энергию, задор, находчивость молодых, без которых не будет будущего у все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до расширять действенность работы по многим конкр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выбра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кураторов» - отметил Моисей Ким.

Сергей Кулибаба подарил председателю МДКМ книгу об известных лицах России,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мног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общины России: «Замечательные ребята, мне приятно, наблюдать за их ростом. И мы всегда рады помочь вам в ваших делах. Вы провели несколько мероприятий у нас в Центре культур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ри ГРДНТ и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ес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вами. Также поздравил и Роберт Ким, вручил председателю и членам МДКМ грамоты, за плодотворную работу и актив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этой датой,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 легкое занятие, чтобы достичь каких-то успехов, нужно полностью отдаться нелёг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е, и только тогда вы сможете достичь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результата. Желаю вам сил, энергии и успехов в дальнейшей работе» - искренне поздравил Роберт Ким.

Эдуард Ким, Андрей Ким и Жанна Сон поблагодарили ребят за их обществ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ысказали предложения - ещё активнее и вдумчиво работать по части сохранения самобытности, языка, культуры, традиций, обычаев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уч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го наследия предков. И тесно работать и с зарубежными корейца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в Москве.

Павел Пай далее сердечно поблагодарил руководство ООК (Цо В.И. Ким В.Н., Ким М.И.) всех наставников за доверие и оказанную им помощь. Он вручил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всем тем, кто на протяжении года помогал в их нелегкой работе.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18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е аграрии в ожидании большой посевно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производител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готовятся к проведению весенне-полевых работ. Более тысячи единиц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техники выйдут на островные поля. Свыше 90 процентов из них уже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и готовы к новому рабочему сезону.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слагаемых успеха в посевной кампании является качествен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ая техника. Это прекрасно знают специал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кооператива «Соколовский». Почти 750 гектаров посевных площадей заставляют содержать внушительный парк машин и механизмов. В весенне-полевых работах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ны 34 единицы сельхозтехники. Работа в автомастерской одного из аграрных передовик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дет непрерывно.

- Сейчас у нас на ремонте стоят трактор «Беларус», три комбайна, два гребнеобразователя, немецкий культиватор, еще собираем дисковую косилку. Плановые ремонты начинаются с ноября, идут до самой посевной. Работа кипит! – рассказывает заведующий машинным двором СПК «Соколовский» Сергей Гордеев.

В этом году на поля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 выйдут новые кормоуборочный комбайн КСК-600. Он был приобретен в текущем году и обошелся в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оловину из которых возместил областной бюджет. В прошлом 2017 году сумма средст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правленная в хозяйство на обновление техники из бюджета области, составила 1 миллион 55 тысяч рублей, было приобретено 4 новых единицы.

Несмотря на прежние посевные площади,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 «Соколовском» нацелены на большой урожай. Этому должно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риобретение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объеме, средств защиты, внесение известняковой муки, отмечает председатель СПК «Соколовский» Ольга Вяткова. Малая посевная в хозяйстве в самом разгаре, в теплицах для получения рассады высевают капусту, томаты, перец, баклажаны, цветы. В период кампании планируется высадить в открытый грунт более 600 тонн картофеля, 25 тонн из которых – семена элитных сортов.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и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значительно обновился парк техники. Аграрии приобрели более 800 единиц техники, 478 из которых субсидированы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сумму почти 63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Старая техника требует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на ремонт, вырастают эксплуатационные затраты, поэтому мы стараемся и объясняем сельхоз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ям, что необходим своевременный обмен старой на новую,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ситуацию ведущий консультант департамента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а и малых форм хозяйствова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Григорьев.

На Сахалине определ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 года – 2018»

Названы имена лауреатов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2018». Имя лучшего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28-го смотр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л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центре имени Чехова.

29 преподавателей-новаторов – уч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 неделю, с 9 по 17 апреля, боролись за титул лучшего. Конкурсные испытания проход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различ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лощадках. Сегодня уже позади открытые уроки, мастер-классы, методические семинары и защит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ектов.

В этом году одновременно были проведены три конкурса - «Учитель года»,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дебют» и «Лучший педагог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 итогам каждого были отобраны лучшие из лучших. Поддержать участников, разделить с ними радость победы при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ластной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уководители школ, коллеги-учителя и ученики. Абсолютным победителем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2018» стала Александра Парийчук, учитель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школы интерната села Некрасовка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С 2017 года, помимо абсолютного победителя конкурса, учреждена новая номинация среди молоды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дебют». Первое место было присвоено Анастасии Максимовой, учителю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СОШ № 32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кже, с этого года введена номинация «Лучший педагог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бедителем в этой категории признана Наталья Селецкая, музыкаль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детского сада №1 «Улыбка» поселка Смирных.

Призерам были вручены главные призы конкурса - «большой» хрустальный пеликан и денеж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личная премия в размере 115 тыс. руб.) и генерального спонсора компании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средства дл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учебного нагляд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330 тыс. руб.).

- Завершен очередной, двадцать восьмой конкурс «Учитель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казала ми-

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Наталья Мурашова, поздравляя победителей и участников. – На учительском небосклоне зажглись очередные звезды. Очень приятно, что среди них становится всё больше молодежи. Спасибо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за ваши педагогические находки, смелость, открытость и любовь к профессии. Пусть добрым будет ум у вас, а сердце умным будет.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марафона были вручены почетные дипломы о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и ценные подарки от спонсоров 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2018-2019 годах победители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ять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конкурсах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мастерства по своим номинациям.

Около ста семей получили ключи от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в Тымовском

В поселке городского типа на улицах Юбилейной и Деповской сданы сразу четыре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 Новоселами стали работник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образования,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и, а также молодые специалисты, в которых нуждается район.

В их числе – медсестра Тымовской больницы Валерия Полконская. В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она пришла всего полгода назад и о собственном жилье пока даже не мечтала.

- Очень счастлива, что получила квартиру в районном центре, это так важно для меня. Жила с мамой в соседнем селе Кировском. В любую непогоду ежедневно приходилось добираться на работу. Теперь эти неудобства в прошлом. Сейчас думаю, как расставить мебель в новой однокомнатной квартире.

Общая площадь четырех новостроек – около 6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них 99 одно-, двух- и трехкомнатных квартир. Построено жилье в сжатые сроки – всего за полгода. Применена энергосберегающая технология. Для домов выбран прочный монолитный конструктив, способный выдержать даже мощное землетрясение до 8 баллов. Для отделки наружных стен использован японский фасад. Во внутренних помещениях выполнен весь комплекс отделочных работ.

- Стоимость проживания в домах будет на 50 процентов ниже среднерыночной. Аренда однокомнатной квартиры составит примерно пять тысяч рублей, двухкомнатной – шесть тысяч, а трехкомнатной – восемь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и этом районные власти смогут через свои субсид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уменьшить эти суммы, - рассказал Антон Л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ипотечного агентств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Тымов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униципалитет компенсирует новоселам до половины арендной платы. В местном бюджете на эти цели заложили около 3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целом,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и сда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22 арендных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жилых дом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ниве, Холмске, Поронайске, Невельске, Корсакове, Долинске, Тымовском, Смирных и в селе Малокурильском на острове Шикотан. Ключи от 681 квартиры получили работник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муниципа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молодые специалисты, работники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Сейчас продолжается возведение еще 46 домов в 14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 это 1303 квартиры.

На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в 2017 году было выделено около 4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а расширенной коллег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вели итоги прошлого года, утвердили и скорректировали планы на текущий год. Решено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уделять пахотным землям и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е продукции производимой местным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фермерами и кооперативами.

На реализацию отраслевой госпрограммы по развитию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2017 году выделено из областного и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ов 3,9 млрд. рубле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имает лидирующее место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по темпам роста выпуск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 треть выросло производство мяса скота и птицы.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больше не нуждаются в завозном картофеле, а благодаря вводу новых тепличных площадей за год на 25 процентов увелич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овощей закрытого грунта.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на 2900 голов дойного стада и свиновод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до 62 тысяч голов в год, а также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по созданию бройлер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 10 тысяч тонн мяса птицы. Совхозом «Тепличный» была сдан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четвертая последняя очередь теплиц площадью 2 гектара. Приобретены 189 единиц техники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егион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ен собственным картофелем и яйцом, овощами открытого грунта на 90,8 процентов, овощами защищенного грунта на 61,4 процента, молоком на 19,3 процентов, мясом – на 15,9 процентов.

Впервые с советских времен собрано 730 тонн ячменя на корм животным, полученная урожайность в компании

«Грин-Агро Сахалин» составила более 20 центнеров с гектара. Это результат на уровне лучших хозяйст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округа.

Введение в строй новы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является безусловным успехом островных аграриев. Но есть и определенное отставание, например,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и запуске объектов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продукции. Это не дает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в полной мере оцен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аботы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насел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ием местны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оэтому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в течение 2018-2019 годов закончить на отдельных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х установку и монтаж необходим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продукции и запустить его в работу. На прилавках островных магазинов увеличится колич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продуктов высокого качества, с длительным сроком хранения и доступной ценой.

На текущий год перед коллективам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ят большие и перспективные задачи.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реализация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проведены мелиора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 земля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Развитие мясного и молочного скотоводства, продолжение технической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казание поддержки малым формам хозяйствования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ы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молока – до 31,4 тысяч тонн; мяса – до 11,5 тысяч тонн; яиц – до 132 миллионов штук; картофеля – до 82,8 тысяч тонн; овощей – до 42 тысяч тонн.

Сахалинский курорт «Горный воздух» закрыл сезон «Жарким спуском»

Десятки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а в минувшее воскресень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ярком празднике, посвященном окончанию горнолыжного сезона. На расположенно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урорте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остоялся уже традиционный «Жаркий спуск» в купальных костюмах. Его темой стал «Дикий Запад».

Южносахалинка Алена Матиато – ежегодная участница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имерила на себя образ принцессы, а в этом – индианки. Говорит, на изготовление оригинального костюма потратила всего три часа.

- Эмоции зашкаливают, прекрас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Мы всегда его очень ждем. Жалко, что сезон закончился. Хотелось еще немного покататься, - поделилась девушка.

Одно из главных условий для участия в «Жарком спуске» - минимум одежды на человеке, отмеч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аздника. В этом году с вершины горы Большевик спустились 63 участника карнавала. А хорошее настроение, по общему мнению, не смогла испортить даже холодная погода. Первым к финишу прийти не требовалось, обладателя главного приза – ски-пасса на следующий сезон определил случай. В этом году фортуна улыбнулась Захару Чернявскому, который переделался в лихого ковбоя.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на празднике получили и победители в 6 номинациях: «Вождь краснокожих», «Малыш Библи», «Маленький Джо», «Мисс Дикий Запад», «Лихой ковбой» и «Шериф Быстрая Пуля».

«Жаркий Спуск» является традиционным завершающим событием сезона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Первый раз его провели в 2013 году. С тех пор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постоянно растет.

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напомним, сегодня называют лучши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Сибири,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изменениям, которые начали происходит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бъект вошёл в состав одноим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Сегодня здесь уже имеется самая обширна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она катания, современные подъемники и системы оснежения.

Это отразилось и на итогах сезона - больше 60 тысяч гостей, 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больше миллиона четырехсот тысяч проходов.

Притоку любителей активного отдыха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гибкая тарифная политика на услуги и подешевевшие авиабилеты дл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а также различные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В этом сезоне на склонах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готовились и сборные страны перед Олимпийскими и Паралимпийскими играми в корейском Пхенчхане. Для команды по фристайлу в дисциплине ски-кросс была подготовлена специальная трасса, полностью идентичная олимпийской.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подготовке на Сахалине, российский фристайлист Сергей Ридзик смог завоевать бронзовую медаль Олимпиады. А паралимпиец Алексей Бугаев показал еще более внуши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удостоившись золотой и серебряной медалей.

К 2020 году, как ожидается,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появится свыше 65 километров горнолыжных трасс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оснежением, 6 новых канатных дорог. Частные инвесторы возведут две гостиницы, горнолыжную деревню, два водноспортивных центра и японский бальнеолог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세계한인언론인들과 공감과 연대 형성

이낙연 총리, 세계 한인 나다!

4월 13일 총리공관 초청 ... “해외언론 활동은 독립운동같은 심정” 격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외 한인 언론활동을 ‘독립운동’에 비유했다. 지난 4월 13일(금) 세계한인언론인 58명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한 이낙연 총리는 해외 한인 언론의 열악함을 언급하며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해외에서 언론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참석 후 세언협 회원들과 만난 이낙연 총리는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런 날 해외 한인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 오찬 간담회는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이하 세언협)가 주최한 제17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 총리와 오찬에는 나종민 문체부 제1차관도 배석했다.

기자생활 21년, 인생의 한복판을 ‘기자’로 살아온 이낙연 총리는 3년 2개월간의 동아일보 도쿄 특과원 생활을 바탕으로 세계 한인언론인들과의 공감과 연대를 이끌었다.

사명으로서의 언론과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의 성격이 교차하는 해외한인언론의 어려움을 명확히 파악한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2중 3중의 어려움을 마주하면서도 잘 견뎌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인 언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경영위기를 넘어 신뢰의 위기까지 봉착한 언론계에 안타까움을 토로한 이 총리는 불멸의 격언인 ‘논평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는 명제를 들어 불신의 시대를 대처하는 언론인의 자세를 강조했다.

“진실을 보도한다고 노력했지만 늘 실패하곤 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다.”고 회고한 이 총리는 “기자 혼자 뛰어나다며 몇 사람

만나 듣고 쓰는 것이 ‘과연 진실의 몇 %일까’라는 두려움과 겸손함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21년을 신문기자로 살았고 그것으로 밥을 먹고 자식을 키웠던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며 진실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겸손한 ‘기자의 자세’를 당부했다.

이날 오찬 후에는 세계 한인언론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위상 정립 등에 관한 세언협 회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i뉴스넷 경운주 발행인(미국)은 ‘필요할 때는 한민족, 한국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서는 외면당하고 방치되고 있는 게 ‘재외동포’라며 재외동포를 대하는 한국인과 한국 정부의 이중적인 시각을 지적했다.

경운주 대표는 또한 “회기 때마다 발의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재외동포청 설립’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사기사건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정책이 정의하는 재외동포는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한호일보 고직순 편집인(호주)은 ‘세계한인무역협회인 월드 옥타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고 상기하며 ‘세계한인 언론인들의 대표적인 협의체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도 월드 옥타를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의 지원’을 요구, 각 거주국의 한인들과 대한민국을 잇는 소통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한인포스트 정선 발행인(인도네시아)은 가치공유 4차 산업시대에 최고의 아이템은 미디어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은 동포언론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 세계 한인언론이 지닌 가치자산이 대



사관, 코트라, 코이카 등의 정부기관의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세계 한인 언론사와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의했다.

또한 정선 대표는 유명무실한 재외동포언론지원법의 현실을 설명하며 ‘한국에도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듯이 해외한인언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오찬을 마친 세 시간 후 페이스북에 세언협과의 만남을 포스팅하며 ‘특별한 관심’을 피력했다.

이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세계한인언론인 대표단의 총리공관 초청은 10년 만의 일’이라고 적은 후 “많은 나라에서 교민과 한글언론 이용자가 줄어드는 고민이 있다. 한글, 한국어 교육과 한글 언론을 함께 돕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총리의 페이스북 포스팅에 한 네티즌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에는 머나먼 이국에서 자금을 보태고 애쓴 자랑스런 재외동포들이 있었다.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해 나가는 세계한인언론인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니 기쁘다’며 관심을 보였고 ‘한글언론 지원, 좋은 정책을 기원한다’ ‘참으로 오랜만에 각 분야가 살아나고 있으니 즐겁다’는 등의 호응이 이어졌다.

([공동취재단] 최윤주 기자)

[우리말로 깨닫다]

하늘이라는 말

<하늘>이라는 말은 매우 구체적으로 보이지만 매우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면 하늘이라고 합니다. 아주 커도 하늘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때도 하늘에서 왔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면 어디서부터가 하늘인지 알기 어렵고 어디까지가 하늘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옛 사람에게서는 지금 우리보다 더 신비롭고 두려운 곳이 하늘이었을 겁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하늘나라로 갔다>는 말이 죽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을 보면 하늘은 정말 알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늘같은 은혜>라고 하면 은혜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하늘을 보면서 수많은 상상을 합니다. 하늘을 자세히 보면 하늘이 둥글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다란 구(球) 속에 지구가 놓여있습니다. 하늘이 넓게 감싸는 모습에서 안심하게 됩니다. 하늘은 그런 느낌입니다. 동양에서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고 하여 하늘을 원으로 보았는데 저와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구(地球)>라는 말은 땅이 둥그랗다는 말이니 생긴 지 오래지 않은 표현이겠네요.

옛 신화를 보면 하늘에서 온 사람이 많습니다. 환웅의 이야기도 하늘에서 온 왕의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외계인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표현만 놓고 보면 외계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구름을 타고 천둥 번개와 함께 오는 모습은 잘은 모르지만 외계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늘에서 왔다는 의미는 그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디선가 이주해 온 것이죠. 이주민을 그럴 듯하게 묘사할 때 하늘에서 왔다고 합니다. 저쪽 마을에서 왔다는 말은 어쩔지 덜 멋있어 보입니다. 하늘은 신비롭지만 어딘지 모르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늘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하늘처럼 생각하는 것을 차별의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아마 남편을 하늘같이 생각하라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하늘같은 남편이라니 아내는 땅인가 하면서 차별의 느낌을 키웠을 겁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는 생각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땅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땅을 어머니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차별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근함과 넉넉함이 느껴지지요. 지모신(地母神)이라는 믿음의 간절함도 있습니다. 풍년을 기리는 마음이지요. 생각해 보면 풍년은 땅의 힘만으로도, 하늘의 힘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옥한 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적당한 햇살과 비, 바람이 있어야겠지요. 물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거기에 사람의 성실함일 겁니다.

하늘처럼 생각한다는 말에서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자어로는 경(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천애인(敬天愛人)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도 하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의 임금은 하늘이라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왕도 있었죠. 하지만 임금은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백성은 하나하나 하늘입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생각하지 않고서는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습관이 아니라 진심이기에 바랍니다. 그럼 정치는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서로를 하늘처럼 생각하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사실 많은 종교는 이런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라는 말은 정확히 이런 생각을 보여줍니다. 표현이 달라져 있을 뿐 생각은 같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경하고 고마워하면 세상은 그대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이라는 말에서 귀한 마음을 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낙연 총리 모두발언 전문>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오찬 - 2018.4.13. 국무총리 서울공관

김소영, 전용창 회장님을 비롯한 해외 한인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런 날 해외 한인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독립 운동하는 기분으로 해외에서 언론활동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동아일보 도쿄 특과원을 3년 2달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에는 비교할 바 아니지만, 해외에서의 취재 보도가 얼마나 어려운가 게다가 사업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언론, 해외에서 한인을 상대로 하는 언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2중 3중의 어려움을 여러분께서 마주하시면서도 잘 견뎌주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나 국외나 세계적으로 언론은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엮고제 신문의 날에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헤겔이 1770년부터 1831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헤겔이 생전에 이런 얘길 했습니다. 인생을 인도하는 원천으로서 또는 권위로서 종교가 했던 역할을 뉴스가 대체할 때, 그때 그 사회는 근대화되는 것이다, 이 말을 1831년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했습니다.

중세시대 종교가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고 또 삶을 영유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뉴스가 대체했을 때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역할을 하

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뉴스마저도 중세가 끝날 무렵의 종교 같은 상황에 점점 처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덜 믿고, 덜 영향 받기 시작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중세시대 종교를 순종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뉴스를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평가하고 때로는 선별하고 때로는 감시하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하자면, 경영의 위기는 진작부터 왔지만 신뢰의 위기까지도 지금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언론계 불멸의 격언인, ‘논평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는 것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자신도 진실을 보도한다고 노력했지만 늘 실패하곤 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오보를 내고 괴로워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법관이셨던 어느 분이 회고록에 쓴 바에 따르면, 미국 최고재판소인 대법원마저도 ‘진실의 70%를 가리면 성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물며 기자 혼자 뛰어나다며 몇 사람 만나 듣고 쓰는 것이 과연 진실의 몇 %일 것인가, 그걸 보도하지 않을 순 없지만 늘 그런 두려움, 진실 앞의 겸손함 이런 걸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저도 21년을 신문 기자로 살았고 그것으로 밥을 먹고, 자식을 키웠던 사람으로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민 사회의 소식, 조국의 소식 이런 게 여러분께서 주로 취급하시는 분야일 텐데 어느 쪽도 재밌게 해주시고, 교민사회에 많은 보탬이 되는 뉴스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В 18-30 в исполнении камерного оркестра прозвучат произведения В.Моцарта, Дж.Россини, Д.Каччини, а также популярные шлягеры эстрадной музыки: Арно Бабаджаняна, Максима Дунаевского, Косма и др. Зрители смогут насладиться знакомыми и дорогими сердцу песнями "Жди меня", "Мой путь", "Я помню вальса звук прелестный", "Весна идет" в исполнении студентов эстрадного отделения. Всего в программу войдут 20 номеров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й и вокальной музыки, музыки из кинофильмов, зарубежных и отечественных ретро-шлягеров XX в.

В 22:00 в исполнении "Абсолют Джаз Квартета" прозвучит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ая импровизационная музыка. Зрители услышат легендарные композиции Чика Кореа, Джозефа Косма, Стэнли Таррентайна, Хораса Сильвера, Кэнни Дорема, Эролла Гарнера, Хэрби Хэнкока, Джо Завинула, Анжело Бадаламенти, Джона Колтрейн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제 3 회 "쌍둥이는 참 좋다" 축제 · 경연 이 사할린에서 열렸다

올해 3번째로 열리는 "쌍둥이는 참 좋다" 축제 · 경연이 진행되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그림과 수공예품 전시회를 비롯해 <악기 연주>, <우수 낭독인>, <노래자랑>, <무용>등 4 부문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공연을 볼 수 있었다. 올해에는 20 가정이 축제에 참가했다.

러시아 여성연맹 부회장인 올가 비쿨로바는 "모든 쌍둥이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하거나, 리듬체조를 하고 있다. '그들의 재능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형제 · 자매들이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도록 최대한 예술창작의 부문을 조성하기로 했다." 고 경연 개최와 진행의 의의를 밝혔다. 한 날에 태어난 2명의 딸을 가진 어머니로서 부회장은 자녀 양육이 쉽지 않으나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올해는 축제 진행 형식이 약간 변동되어 3년 만에 처음으로 예술창작 부문의 경연이 조성되었고 지난 4월 13일에 사할린 인형극장에서 진행된 갈라콘서트에서는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내년에 러시아 여성연맹 사할린 지부는 쌍둥이들 단체를 조직하여 쌍둥이, 세 쌍둥이의 부모들이 서로 교제하며 초빙된 전문가들에게 문의하고, 자녀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ялся третий фестиваль-конкурс "Двойняшки — это здорово"

В этом году прошел третий фестиваль-конкурс "Двойняшки — это здорово". На конкурсе можно был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выставкой рисунков и поделок, а также увидеть творческие номера участников,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 четырех номинациях: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е исполнительство", "Лучший чтец", "Вокальное мастерство" и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е мастерство". В этом году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фестивале решили 20 семей.

—Все близнецы чем-то занимаются: рисуют, поют, занимаются акробатикой. И мы подумали, почему бы не показать их таланты? Поэтому мы решили сделать макс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творческих номинаций, чтобы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посмотреть, как братцы и сестренки занимаются каким-то общим делом, — рассказывает об идее создания и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урс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Ольга Викулова. Будучи мамой двух дочерей, рожденных в один день, она как никто другой знает, что воспитывать их — непростое, н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е занятие.

В этом году формат проведения фестиваля несколько изменился — в первый раз за три года состоялось показ творческих номеров, а также торжественное награждение участников на гала-концерте, прошедшем 13 апреля в зале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тделением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ние сообщества близнецов, в котором родители двойняшек и тройняшек смогут общаться между собой, задавать вопросы и получать советы по их воспитанию от приглаше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 -15.00

Юбилеи,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реклама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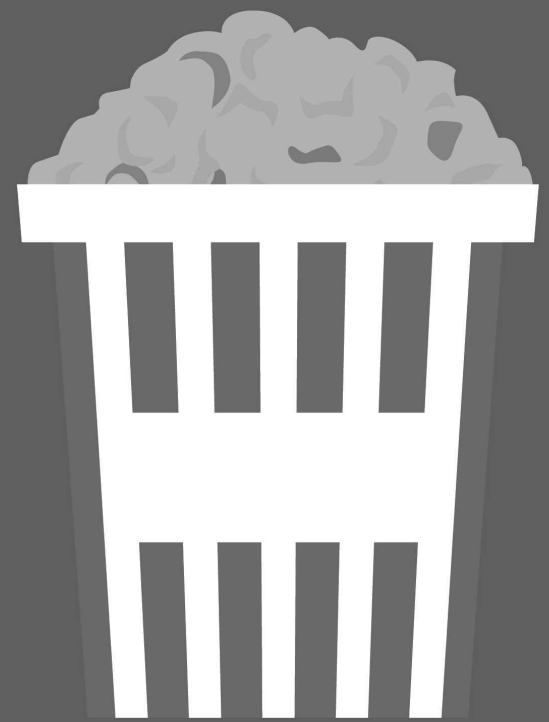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